

碩士學位論文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指導教授 김 항 원

俞 昭 榮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俞昭榮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2月

Actual Condition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s Adaptation and Directions
of Support Policy in Jeju City

Yuh, So-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 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Name and signature)

Dat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유소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항 원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국경 없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에 의하면 2006년 4월 말 당시 도내 거주 외국인 총수는 2,645명인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2006년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576건의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이 27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들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제주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과 적응실태를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자녀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이들이 제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제주시 특히 한림읍과 애월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방법을 수행하였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해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부분에서 어려움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 공부지도, 교육비 순으

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족 원인으로 의사소통과 시부모, 남편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 문제였다. 셋째,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를 보면 상담, 교육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 내의 문제와 지리적 원거리 등으로 방문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희망취업직종 면에서는 관광 통역 및 번역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보조 그리고 학원 강사 순이었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요구사항에서는 이민자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과 연관된 정보 및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고, 한국문화의 이해 및 생활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면 이들은 특히 언어차이로 인한 일상적인 의사소통문제 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녀교육 및 경제활동 등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댁과의 갈등, 한국문화와의 충돌 등은 문화적 혼란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취업과 연계 가능한 인적자원 프로그램의 마련, 다문화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대상과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7
1.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형성 배경	7
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13
3. 선행연구의 검토	16
III.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과 적응 실태.....	18
1. 사회생활	18
2. 가족생활	23
3. 자녀교육	28
IV.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34
1. 사회생활	34
2. 가족생활	36
3. 자녀교육	39
V. 결론	42
참고문헌	45
ABSTRACT	50

<표 목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경로	4
<표 2>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	6
<표 3>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및 자녀연령	6
<표 4>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시부모님과과의 동거 현황	6
<표 5>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	13
<표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	13
<표 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	14
<표 8>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15
<표 9>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15
<표 10>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 취업직종	18
<표 11>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19
<표 12>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19
<표 13>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	

24

<표 14> 복지관 및 공공기관 이용 사유

25

<표 15>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

29

<표 16> 각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40

<표 17> 2007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학생 1인당 예산지원 현황

4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 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국경 없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사는 남성의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수는 2006년 3만 4천여 명에서 2009년 110만 6천여 명으로 6년 사이에 약 36.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수의 빠른 증가현상은 새로운 변화의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가정적·사회적 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적응과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며,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포용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농촌총각과 제3세계 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무수히 많은 이주여성을 낳고 있다.¹⁾ 실제로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²⁾

1) 1990년 이후 2005년까지의 국제결혼 건수는 240,755건이다. 이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2003년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vi.).

2) 여주시민신문,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를 만들자”, 2008년 1월 2일.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에는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 문제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족의 자녀일 만큼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 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는 부적합한 말이 되어버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의 2009년도 도내 외국인 주민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말 현재 외국인 총수는 6,941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562,355명의 1.2%에 해당된다. 2006년 4월 말 당시 도내 거주 외국인 총수는 2,645명인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9,360건이고, 2006년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576건의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이 27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에 따른 최근 3년의 이혼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8건에서 2006년 5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613건의 이혼에 있어 4.9%인 79건의 이혼으로 2002년 1.6건에 불과하던 이혼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결혼이민자⁴⁾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그 동안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연구의 성과 및 선행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제주도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주를 선택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09),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4)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은 2006년 4월 한국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국 출신자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주부’, ‘이주여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존재로 보고,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사회로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과 적응실태를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자녀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셋째,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제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람과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국제결혼가족과 외국인노동자가족, 새터민가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연구대상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즉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과 심층면접방법을 병행해 사용하였다. 국·내외 문헌자료 및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기본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사회 적응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제주이주민센터에서 통역, 행사참여 등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주도, 특히 한림읍과 애월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표집방식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⁵⁾ 여성결혼이민자 중 출신국가는 중

5) 눈덩이 표집은 소개의 소개를 받아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이 표본으로 선택되므로,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비슷한 표집방법이다. 첫 단계에서 단순무작위표집 방법이 적용되었기에, 확률적 표집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소개 받는 연구대상들이 같은 지역에 있거나, 친척, 같은 나이, 비슷한 심리적인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선택되므로,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대상을 찾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모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모집단에서 구성원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 적절한 표집방법으로, 연구자는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목표 모집단 구성원의 일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에게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눈덩이’는 연구자가 찾아낸 각 피실험자에게 다른 피실험자들을 제시하도록 하여 축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한국계포함), 베트남, 필리핀, 연령대는 20대 이상 30대 미만, 거주기간은 2~8년,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2명을 면담하였으며, 결혼이민자센터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주도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경로

번호	이름	출신국가	거주기간	연령	배우자 직업	자녀 수	이주경로
1	A	중국	7	25	농사	2	결혼중개업체
2	B	중국	7	29	중장비기사	1	인터넷 채팅
3	C	중국	2	23	환경미화원	1	인터넷 채팅
4	D	중국	2	28	자동차정비사	1	친구소개
5	E	중국	3	22	회사원	1	친구소개
6	F	중국	3	24	개인택시	1	결혼중개업체
7	G	중국	5	24	농사	2	인터넷 채팅
8	H	중국	4	21	택배기사	1	친구소개
9	I	중국	3	27	농사	1	결혼중개업체
10	J	중국	5	25	컴퓨터 수리	2	국제결혼정보회사
11	K	중국	6	25	개인택시	2	인터넷 채팅
12	L	중국	4	26	농사	1	목사님소개
13	M	중국	6	28	농사	1	결혼중개업체
14	N	베트남	2	22	개인택시	1	웬팔
15	O	베트남	4	25	농사	1	국제결혼정보회사
16	P	베트남	3	22	일용직노동자	1	인터넷 채팅
17	Q	베트남	6	23	농사	2	국제결혼정보회사
18	R	베트남	6	24	개인택시	2	결혼중개업체
19	S	베트남	7	27	농사	2	인터넷 채팅
20	T	베트남	4	21	대리운전	1	목사님 소개
21	U	베트남	2	22	택배기사	1	친구소개
22	V	베트남	7	28	중장비기사	2	친구소개
23	W	베트남	5	29	일용직노동자	1	인터넷 채팅
24	X	필리핀	7	27	농사	2	결혼정보회사
25	Y	필리핀	2	23	농사	1	친구소개
26	Z	필리핀	5	28	회사원	2	결혼중개업체
27	AA	필리핀	4	21	대리운전	1	결혼중개업체
28	BB	필리핀	4	24	판매원	1	인터넷 채팅
29	CC	필리핀	5	25	개인택시	2	국제결혼정보회사
30	DD	필리핀	5	22	회사원	1	지인소개
31	EE	필리핀	6	26	농사	2	목사님소개
32	FF	필리핀	3	25	자동차정비사	1	결혼중개업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연령별 분포, 거주기간 및 자녀연령별 현황은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제주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2명 중 중국(한국계포함) 13명, 베트남 10명, 그리고 필리핀 9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 이상부터 23세 미만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23세 이상 26세 미만, 26세 이상 30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수치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4년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가장 수치가 높았고, 4년 이상 6년 미만은 필리핀, 6년 이상 8년 미만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은 1세 이상 3세 미만은 베트남이 4명으로 가장 높았고, 3세 이상 5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이 7명, 5세 이상 7세 미만은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각각 3명이었다.

시부모님과 동거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국가는 베트남이 11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국가도 역시 베트남이 9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국가는 12명 중 5명으로 필리핀으로 파악되었다. 32명 중 12명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1명이 시부모님을, 9명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농업이 11명으로 34.4%를 차지하였으며, 개인택시가 5명으로 15.6%, 회사원 3명으로 9.4%, 자동차정비사, 중장비기사 각각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이주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채팅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각각 8명으로 25.0%를 차지하였으며, 친구를 통해서 6명으로 18.8%,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5명으로 15.6%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작성은 '다문화',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 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선행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조사도구를 만들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개인 정보, 결혼 후 이주과정, 자녀관련, 가족 관련, 복지시설 서비스 관련, 취업관련 등의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연 령			계
	20~23	23~26	26~30	
중국(한국계포함)	2	6	5	13
베트남	4	3	3	10
필리핀	2	4	3	9

<표 3>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및 자녀연령

(단위: 명)

구 분	거주기간			자녀연령		
	2~4	4~6	6~8	1~3	3~5	5~7
중국(한국계포함)	5	4	4	7	5	4
베트남	3	3	4	5	5	4
필리핀	2	5	2	3	7	3
계	10	12	10	15	17	11

<표 4>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시부모님과의 동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부모님	비율 (%)	시아버지	비율 (%)	시어머니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4	36.4	3	33.3	4	33.3	13
베트남	5	45.5	4	44.4	3	25.0	10
필리핀	2	18.2	2	22.2	5	41.7	9
계	11		9		12		32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형성배경

1) 다문화가족의 개념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다문화란 여러 인종이 가진 여러 문화라는 뜻이며, 이는 미국 다문화사회에서 유래되었다.⁶⁾ 이처럼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산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개념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캐나다에는 원주민이나 퀘벡인처럼 인종, 민족, 종교 등에서 다수자 집단과 차이가 있는 문화적 소수 집단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캐나다를 비롯하여 호주나 미국 등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던 국가들,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던 국가들에서 다문화주의가 활성화되었다.⁷⁾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정체성 모델보다는 기본적으로 동화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적 토대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 담론 확산과 관련해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 문화적 다수자 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기준으로 다문화 모델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동화모델과 정

6)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충욱 외 (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pp. 26-30 참조.

7)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호, pp. 6~8.

체성 모델이 있는데, 동화모델은 소수자집단이 다수자집단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통합되기를 원하는 경우이며, 정체성 모델은 소수자 집단이 다수자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⁸⁾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하나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복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문화주의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충욱은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과 같이 인종이 다르거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커플,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생성된 가족 형태이고,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국제결혼가족 그리고 새터민가족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⁹⁾

다문화가족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을 통상 의미하며 외국인노동자가정을 포함시켜 부르는 용어로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왔다.¹⁰⁾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¹¹⁾ 또 다른 정의로 보면,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서¹²⁾ 2006년 4월 건강가정시민 연대가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이라 불리고 있다.¹³⁾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8) 다문화 모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손철성(2008), 전계서, pp. 4~21 참조.

9) 최충욱 외(2009), 전계서, p. 332.

10) Welfare News,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2009년 9월 21일.

1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 대책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년 5월 1일.

12) 김정란,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행정대학원, p. 8.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크게 외국인노동자가족, 국제결혼이주자가족, 새터민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¹⁴⁾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의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지만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노동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개념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 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란 용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를 대신하여 학술용어로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단순히 이주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한 노동자’와 ‘국외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용어법이 될 수 있겠다.¹⁵⁾

둘째,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이혼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체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가정들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

13)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신규제정 2008. 03. 21.

14) 김정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복지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5~10.

15) 외국인근로자대책협의회(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pp. 15-16.

계화 속의 자본주의 체계나 이 여성들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양 국가의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간의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있다. 세계화 시대는 사람과 자본, 문화와 기술은 물론이고 사랑 또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며 결혼을 통해서 이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빈곤과 실업에 빠져있는 저개발국가 이주자들은 신분 상승의 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취업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국제결혼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결혼이민자는 19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국내여성과의 결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남성과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말부터 농촌 지역에 불기 시작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붐에 의해 본격화된 이후 2008년에는 전체 농어촌 지역의 결혼 건수의 38.3%에 해당할 만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¹⁶⁾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혼혈 아동의 증가로 이어져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사람이 지난 한해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출신의 외국인과의 결혼한 경우는 총 3,6204건에 달한다.¹⁷⁾

셋째, 새터민 가정 및 그 자녀로서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및 그 자녀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있다.¹⁸⁾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 체제하에서 생활해 오므로써 생기는 사회·문화적 적응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의 한국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취업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얻더라도 남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

16) 통계청(2008), 「혼인통계」.

17) 조선일보, "코시안, 10년후 10만명 달할 듯", 2003년 5월 4일. 이와 관련해, 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는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고 ‘코시안’ 가정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0년만 지나면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코시안의 수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18) 서혁(2007),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제12호, 인간연구소, pp. 57-92.

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각각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 1세대와 2세대로 나뉠 수 있다. 1세대는 한국 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를 들 수 있고, 2세대는 한국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1.5세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유아기를 보내고 한국에서 초·중등학교의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문화가족은 크게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과 결혼이민가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이 있고, 외국인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이주노동자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이 있다. 그리고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이주한 이주가정 등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제한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정의 중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가정을 뜻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형성배경

정보·통신·기술과 대량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외의 이동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람의 이동도 증가하거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000년에는 1억 6천 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약 33%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선진국으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⁰⁾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처음 생겨났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의 형성

19)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pp. 20~21.

20)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복지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27~38.

은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이나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미국으로 귀환하는 남편을 따라 이주하였다.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하여 해외로 이주한 규모는 1970년 3,700건에서 서서히 증가하면서 1979년 6,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100건으로 감소하였다.²¹⁾

우리나라는 과거 7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 심각한 인구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시작되어왔다. 특히 농촌 사회의 낡은 관습과 한계에 염증을 느낀 젊은 여성들은 이제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녀 인구 균형이 무너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등지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을 들여오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적인 역동구조 속에서 노동력의 이동현상이 우리나라의 3D업종 기피현상과 맞물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으로 연결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사상은 성비불균형을 가져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총각들이 한국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노총각들은 결혼하기 더욱 힘들어졌고, 그들의 결혼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셋째,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여성들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상대자의 조건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을 우선으로 선호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남성들은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넷째, 세계화와 개방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체류자와의 교류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체류자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력이 싼 외국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유입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외로부터 유입되어온 근로자와 한국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인해 역시 국제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 통계청(2004), 「인구통계」.

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 구성 전망을 보면 <표 5>와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5>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자료: 통계청(2007), 「인구동태(혼인)」

<표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추이(2001~2006)

(단위: 건)

연도	총 혼인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01	3,708	173	76	97
2002	3,574	190	105	85
2003	3,379	294	202	92
2004	3,325	421	268	153
2005	3,382	328	231	97
2006	3,576	379	277	102

자료: 통계청(2007)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7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6년과 대비하여 0.8% 감소하였으나, 전체 결혼에 있어서는

11.1%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결혼에 있어 10쌍 가운데 적어도 1쌍은 국제결혼임을 보여준다.

<표 6>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남편에 비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도에 국제결혼은 421건 중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건수는 268이었고,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건수는 153이었다. 2005년에는 327건으로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다시 379건으로 증가하였다.

제주도에는 외국인노동자가족이 소수이고 약간의 새터민가족이 있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²⁾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쳐 총 979명 중 686명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 국 (한국계포함)	베트남	일본	필리핀	러시아	미국	기타
계 (제주시+서귀포시)		979	448	207	81	99	5	18	121
제주시		686	295	160	56	56	5	15	99
여성	계 (제주시+서귀포시)	935	445	207	67	99	4	7	106
	제주시	647	292	160	43	56	4	5	87
남성	계 (제주시+서귀포시)	44	3	0	14	-	1	11	15
	제주시	39	3	-	13	-	1	10	1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686명 중 중국(한국계 포함)출신이 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160명, 필리핀 출신과 일본 출신은 56명으로 같았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2) 제주이주민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

여성결혼이민자가 647명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한 반면, 남성결혼이민자는 5.7%라는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표 8>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출신국가	계	읍거주	면거주	동거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계	647	218	33	396
중국(한국계포함)	292	97	17	178
베트남	160	70	8	82
일본	43	11	1	31
필리핀	56	22	5	29
러시아	4	0	0	4
우즈베키스탄	6	1	0	5
기타	86	17	2	6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9>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 현황

(단위: 명)

출신국가	계	읍거주	면거주	동거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소계	39	4	1	34
일본	13	-	-	13
미국	10	3	-	7
중국(한국계포함)	3	-	1	2
캐나다	8	-	-	8
독일	1	-	-	1
러시아	1	-	-	1
네팔	1	1	-	-
홍콩	0	-	-	-
기타	2	-	-	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7) 재구성」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647명이고, 이 중 중국(한국계 포함) 여성결혼이민자가 292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를 보였으며, 베트남 160명, 필리핀 56명, 일본 43명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61.2%가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읍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

민자가 면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약 6.6배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결혼이민자 39명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4명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지역은 1명, 읍 지역은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일본출신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8명, 미국 7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결혼의 형태 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국제이주 및 국가 간 노동이주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정부의 대책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연구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가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및 관련 학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동시에 2000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범위로 확산되어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의 선행연구를 위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간 매우 활발히 진행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연구는 정책연구와 개인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연구들은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담은 보다 대규모적인 설문지를 조사하여, 포괄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지원을 위한 실태분석

(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심인선, 2008), 결혼중개업체의 실태조사 (한건수 외, 2006)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나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 전체가 겪고 있는 한국사회적응의 문제점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의 문제를 파악하여 언어·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언어와 문화실태 조사를 통한 연구(왕한석 외, 2005), 담화·인지언어학회에서 조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응의 제 양상(왕한석, 2006)과 그 외에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언어습득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문화 적응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증가현상이 먼저 포착된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을 다룬 연구(한건수, 2006; 박재규, 2007; 심인선, 2006; 김보라, 2008)와 국제결혼 이주현황과 가족문제를 다룬 연구(이혜경, 2005)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전라도 지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연구(윤형숙, 2005),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장훈성, 2008)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의 전반적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상담사례 분석(최협 외, 2004; 서지명, 2008; 홍달아기, 2006)을 통하여 가정폭력 실태 및 대책, 부부갈등 등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시행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제 체류기간, 거주지역, 지역사회의 지원프로그램 유무 및 참여정도 등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II.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과 적응실태

1. 사회생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희망취업직종을 보면 <표 8>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말 이외에도 자기나라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 통역 및 번역과 관련된 직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무보조를 희망하였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한국계포함)이 관광통역 및 번역 직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베트남이 사무보조, 중국(한국계포함)이 학원 강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희망 취업직종으로 보면, 관광 통역 및 번역이 40.6%로 가장 높았고, 사무보조는 25.0%, 학원 강사는 21.9%를 차지하였다.

<표 10>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 취업직종

(단위: 명)

구 분	관광 통역 및 번역	비율 (%)	사무보조	비율 (%)	학원강사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8	47.1	1	12.5	4	57.1	13
베트남	4	23.5	5	62.5	1	14.3	10
필리핀	5	29.4	2	25.0	2	28.6	9
계	17		8		7		32

<사례 #12>

애기가 지금 2살이에요. 애기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
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요. 한국말은 아직 서툴지만, 틈틈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면 관광 관련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요즘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중국말 할 줄 아니까 통역하면 괜찮
을 거 같아요(번역하려면 한국말을 많이 잘해야 할 거 같아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 해
소에도 좋을 거 같고 우울증에도 안 걸릴 거 같아요.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
요.(중국L씨, 26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8일)

<사례 #23>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경제가 안 좋은지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일이 없는 날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리나 보조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아빠를 힘 안들게 돕고 싶어요. 생활위주의 한국말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자리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베트남W씨, 29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1일)

<사례 #30>

애기가 지금 3살인데, 다른 애들보다 한국말이 좀 늦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계속 동네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비밀로)이 있어도 잘 못해요. 소문날까봐 시어머니가 주의를 주세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필리핀DD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7일)

<표 11>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구 분	이민자 교육	비율 (%)	취업정보	비율 (%)	경제적 지원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35.7	4	36.4	4	57.1	13
베트남	5	35.7	3	27.3	2	28.6	10
필리핀	4	28.6	4	36.4	1	14.3	9
계	14		11		7		32

<표 12>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구 분	한국어 학습	비율 (%)	한국문화 이해	비율 (%)	생활정보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5	31.3	5	50.0	3	50.0	13
베트남	6	37.5	3	30.0	1	16.7	10
필리핀	5	31.3	2	20.0	2	33.3	9
계	16		10		6		32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

민자 교육 및 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사전에 한국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접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40.6%가 이민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34.4%는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등의 취업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였으며, 21.9%는 한국생활에 단시간 내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였다. 또한 도청의 폭넓은 경제적인 혜택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35.7%로 이민자교육을 필요로 하였으며, 필리핀과 중국(한국계포함)이 36.4%로 취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는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사전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입국 후 결혼과정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 이해, 생활정보 순으로 파악되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37.5%로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중국(한국계 포함)이 50.0%로 각각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였다.

<사례 #8>

저는 한국에 오면 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가게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너무 틀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포기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가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해서요. 남편은 택배운전기사인데, 트럭을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날까봐 걱정이 되요. 남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도 잘 해주시구요.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해요. 한국말은 조금 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남편이랑은 손짓발짓 하면서 대화를 해요. 시부모님이랑은 남편이 중간에서 통역해 줘요. 낮에 남편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말도 안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올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아요. 국적이 없으니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해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려고요. 그 전에는 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저의 상황을 받아드리기 힘들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한국에 적응해 가려고요. 그래도 다른 중국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남편이랑 시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하하..) 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죠 뭐.(하하하...)(중국H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6일)

<사례 #17>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남편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가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해를 해줘요. 고맙죠. 한국에 온 후로는 베트남에 한번도 안 가봤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요. 남편은 농사를 해요. 저도 같이 도와요. 처음에 농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한국말은 서툴지만 대중 의사소통은 해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가 조금씩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 농사일이 바빠서 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은 못 받아요. 나중에 우리 애기 들어가기 전에 한국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애기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말도 해주면 좋겠어요. 한국오기 전에 ‘저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되면 김치랑 떡볶이랑 잡채 등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베트남Q씨, 23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4일)

<사례 #29>

한국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후에 알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남동생 2명이랑 같이 살아요. 남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국말은 아직 서툴러요. 지금 센터에서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배우다가 쉬고 여러 번 그래서 다시 기초반에 있어요.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하니깐 좋아요.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이랑 가족관계는 괜찮아요. 가장 힘든 것은 한국말이에요.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1년 있다가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바쁜 시간 때에는 아줌마들이 막 짜증났어요. 아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깐 그런 거 같았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오니깐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필리핀CC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11일)

<표 10>에서와 같이 이번 조사에서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32명 전원이었다. 직종은 3가지로 좁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중 희망하는 직종은 관광통역 및 번역이 32명 중 17명으로 53.1%를 차지하였고, 사무보조는 8명으로

25.0%를, 학원 강사는 7명으로 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모두 취업을 원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였다. 가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일차적인 이유 외에 직종별 선택에 따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들 중 관광 통역 및 번역을 선택한 이유가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에 익숙하여 일이 편할 것 같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에도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오는 모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아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라고 한 것이 단순히 모국인 뿐만 아니라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고, 외롭다는 것을 뜻하며, ‘속마음을 털어 놓을 때 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만큼 가족 내에서도 고립감이 크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보조와 학원강사 순으로 선택되었는데, 사무보조는 사무실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하면서 한국말과 문화, 관습 등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학원 강사는 한국말은 잘 하지 못해도 모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이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모두 취업을 원하기는 하지만,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5>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빨리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서 살려고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편할 거 같아요.(베트남O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3일)

<사례 #3>

저는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싶어요. 남편만 돈을 버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요. 저는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말 보다는 중국말을 잘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싶고. 특히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 다른 일보다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

고,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 힘들어요...(중국C씨, 23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2005)의 1차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민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며,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57.5%는 절대빈곤층에 속한다고 한다.²³⁾ 이는 많은 결혼이민여성이 자기 나라의 가난을 피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본국에서 보다 더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7%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도 상당 수 있어 결혼이민가족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양성평등정책과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5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53명으로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04명으로 28.9%, 100만원 미만이 17.3%로 나타났다.²⁴⁾ 상당수의 배우자들의 직업이 1차 산업이나 단순노무에 종사 등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가계를 돕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는 높으나, 언어 소통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구직에 장애를 받고, 설사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가족생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이고, 그들 남편의 직업이 1차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추산되며,²⁵⁾ 이로 인해 가계를 꾸

23) 보건복지가족부(2005),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2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2009).

러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시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도 생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3>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

(단위: 명)

구 분	의사소통	비율 (%)	시부모와의 남편과의 갈등	비율 (%)	경제적 곤란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6	46.2	3	33.3	4	40.0	13
베트남	3	23.1	3	33.3	4	40.0	10
필리핀	4	30.8	3	33.3	2	20.0	9
계	13		9		10		32

<사례 #4>

친정부모님이 한국에 오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가 되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낯설고, 대화도 안 통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 잘 적응을 못 하겠어요. 한국음식은 너무 맵고 냄새가 너무 싫어요. 애기아빠랑 어머니랑은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어서 써요. 남편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전에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옷 사주겠다고 해놓고 사주실 않아요. 내가 물어보면 매일 '나중에 사줄게' 하면서 자꾸 미뤄요. 그리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만 씻는다고, 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지 알고 일주일에 한번 씻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일을 하면 못 마땅하신지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서 가슴이 막 뛰어요. 어머니는 제가 싫은 가 봐요. 뭐라고 하면서 화내시면 제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잘 안 돼요. 정말 답답해요. 애기아빠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면 어머니랑 애기랑 같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요. 몇 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어요.(중국D씨, 28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2일)

<사례 #20>

남편은 밤에 대리운전을 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한국음식을 잘 못하고 해서 구박을 많이 받아요. 대신 청소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

25) 제주특별자치도(2007), 자치행정과.

에 안 드시는지 항상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만 말하면 더 많이 화내시고, 그걸 남편한테 말해요. 그래서 한번 남편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제 얘기를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하고 싶은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짜증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나보고 혼자 다니면 무서워서 안 된다고 말하시는데, 아마 제가 밖에 나가서 집안 얘기를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신 거 봐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요.(베트남T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7일)

<사례 #32>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이고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남편을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사건건 시비 거시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세요. 동네 밖에 한번 갔다오면 혼내시고, 어디서 놀고 오는 거냐고 화내세요. 한번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은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하시는 말 계속 듣고, TV 계속 보고해서 조금은 얘기할 줄 알아요. 지금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필리핀FF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4일)

<표 14> 복지관 및 공공기관 이용 사유

(단위: 명)

구 분	교 육	비율 (%)	상 담	비율 (%)	이용하지 않음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4	44.4	6	35.3	3	50.0	13
베트남	3	33.3	5	29.4	2	33.3	10
필리핀	2	22.2	6	35.3	1	16.7	9
계	9		17		6		32

<표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관 또는 이주민 센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사유는 출신국가별로 교육이 44.4%로 중국(한국계포함)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이 중국(한국계포함)과 필리핀이 35.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사유가 상담을 위해, 그 다음으로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0>

얘기야빠는 컴퓨터수리를 해요. 그런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일주일에 4번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저한테 막 욕하고 나가라고 해요. 술 먹은 다음 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요. 여러 번 참다가 한번은 술을 먹고 나를 때려서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는 분을 통해서 결혼가족지원 센터에 갔어요. 센터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분에게 저의 상황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센터에 있는 분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던 후로 지금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과의 사이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중국J씨, 25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3일)

<사례 #14>

남편은 개인택시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방에 있으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 남편을 데리고 나가요. 그럼 저는 혼자 있어요.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있는데, 물 아껴쓰지 않는다고 화내고, 청소하면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소리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런 일 없었다고 어머니께 말해달라고 하면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알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해요. 그런 남편 태도도 너무 싫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계속 참았어요. 낮에 시어머니가 청소하는데, 막 소리치니까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있다가 센터로 갔어요. 센터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나눈 후 다시 집으로 갔어요. 센터에 있는 분이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잘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집에 있으면 무섭기는 해요.(베트남N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0일)

<사례 #28>

남편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적어요. 한국말은 초급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한국말 다 까먹었어요. 간단한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요. 남편이랑은 영어랑 한국말이랑 사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이랑은 못해요. 너무 늙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해요. 저번에 얘기가 아파서 저 혼자 얘기랑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간호사가 저를 무시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가서 3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얘기아빠한테 전화해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 교실을 다닐려고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이번에는 꾸준히 해서 중급까지 들을 거예요. 열심히 할려고요.(필리핀BB씨, 24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5일)

<사례 #9>

남편은 농사는 짓는데, 쉬는 날에 경마장에 가요. 가서 돈을 많이 잃는 거 같아요. 한 달 전 인가 경마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는지 술을 잔뜩 먹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 보러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돈 벌어 오라고 막 소리치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도저히 못 참아서 센터에 도움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 시어머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시집 온 여자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참고 사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못 만나게 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홍분하며...)

(중국I씨, 27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9일)

<사례 #5>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한국말 배우러 센터에 간다고 하면 싫어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뭐 할 거냐고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내다보면 저절로 한국말 배우게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말로만 그러시고 가르쳐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센터에 가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할까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동네에도 잘 못 돌아다니게 하세요. 저는 센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애월에 사는데, 센터가 제주시 중심가 쪽에 있어서 거기까지 거리도 멀고, 차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중국E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31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용사유는 상담으로 인한 이용이 32명 중 17명으로 53.1%, 교육으로 인한 이용은 9명으로 28.1%, 이용하지 않는다가 6명으로 18.8%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담의 주 내용은 <표 11>에서와 같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시부모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갈등의 이유는 가족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족 원인과 복지관 및 공공기관 이용 사유와 동일하였다. 그 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중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접근성의 어려움, 가족들의 반대, 공공기관을 잘 알지 못해서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주시 삼도동에 1개소, 서귀포시 동홍동에 1개소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제주이주민 센

터)는 제주시 노형동에 1개소가 있다.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센터와 사는 지역과의 접근성이 어렵고, 가족들의 반대가 도시에서 더 외곽으로 갈수록, 즉 시골지역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반대하는 사람은 시부모님이라고 나타났고, 시부모님 중 특히 집안일을 가르치는 시어머님의 반대가 32명 중 22명으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날까봐서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래의 사례에서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교육

<표 3>과 같이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3세 이상 5세 미만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1세 이상 3세 미만이 34.9%, 5세 이상 7세 미만이 25.6%를 차지하였다. 출신국가로는 1세 이상 3세 미만의 자녀가 중국(한국계포함)이 가장 많았고, 3세 이상 5세 미만의 자녀는 필리핀이 7명, 5세 이상 7세 미만의 자녀는 중국(한국계포함)과 베트남이 4명으로 같았다.

<표 15>는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이 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공부지도와 교육비는 같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들 사례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이의 한국어 습득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였고, 또한 공부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능력발달이 많이 부족함으로 가정방문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였다.

<표 15>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

(단위: 명)

구 분	의사소통	비율 (%)	공부지도	비율 (%)	교육비	비율 (%)	계
중국(한국계포함)	7	38.9	3	42.9	3	42.9	13
베트남	5	27.8	2	28.6	3	42.9	10
필리핀	6	33.3	2	28.6	1	14.3	9
계	18		7		7		32

<사례 #2>

우리 아들은 5살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말하는 게 느리고, 발음도 이상한 거 같아요. 우리 아기가 뭘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어쩔 땐 중국말로 우리 아기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하하하...) 또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해요. 내가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아기랑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속에 있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지같이 방문교사가 와서 우리아이하고 나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중국B씨, 29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1일)

<사례 #18>

큰 애는 아들이고, 5살이구요. 작은애는 딸이고, 4살이에요. 둘이 너무 귀여워요. 특히 딸아이는 애교가 너무 많아요(하하...) 두 아이 모두 말을 좀 많이 해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도 저는 좀 한국말을 해서 아이들이랑 대화는 나뉘요. 그래도 한국말은 어려워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한번은 시어머니가 냄비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하하하...)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이해해줘서 괜찮아요. 근데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는데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니 가끔 답답해요. 애기 아빠는 개인택시를 하는데, 저녁에 오면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거나 옆집 아줌마가 가르쳐줘요.(베트남R씨, 24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7일)

<사례 #25>

딸 한명 있어요. 나중에 한명 더 낳고 싶어요. 한국말은 많이 서툴러요. 짧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길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 말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하하하...) 한번은 산후우울증에 걸렸었는데 너무 답답해

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목사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통역해 주셨잖아요. 많이 고마워요.(필리핀Y씨, 23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5일)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표 15>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 32명 중 18명이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56.3%로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각각 7명으로 2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교육문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가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겪는 차별대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를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불쌍한 것’, ‘참 안됐네.’, ‘많이 힘드시겠어요.’라는 말과 함께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시선이 불쌍하고, 우리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으로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결혼이민자들을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혈아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나타냈으며, 또한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려 해도 보육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은 채 한국말 습득을 시키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려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가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²⁶⁾ 중앙대학교 오성배 강사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어휘력·쓰기·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²⁷⁾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데에 따른 사투리의 문제였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표준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알아듣기가 힘들다.²⁸⁾

26)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27)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pp. 70~73.

28) 한라일보, “제주어 보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08년 12월 8일.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중에서도 제주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국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어려움 인해 자신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한국어의 습득을 위해 보육기관에 맡김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교육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 #16>

제주도 말은 한국말과 너무 달라요. 처음 한국에 와서는 신랑하고 얘기하는 거랑 시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랑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는 사투리 쓰지 않아서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동네어르신과 이야기를 할 때는 사투리를 쓰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과는 얘기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끔 멍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버릇없다고 혼날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불쌍한 것, 많이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베트남P씨, 22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13일)

<사례 #27>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 아이와 얘기를 잘 안하게 되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주도말을 배워와요. 아이와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많이 속상해요. 한번은 어린이집에 간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학부형이 저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참 안됐다' 라는 시선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어린이집 보내면 저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우리 아이와 안 놀아줄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어떡해요 (한숨....) 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보내야지요. 우리 애라도 한국말을 잘 해야죠.(한숨,..)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지원도 못 받고 해서 매달 어린이집에 돈을 내려니 많이 힘들어요.(필리핀AA씨, 21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3일)

<사례 #16>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랑은 손짓발짓하며 대충 얘기하는데, 시어머니랑 말도 안 통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장손이라 제사도 일년에 5번 정도 지내요. 제사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났었는데, 제가 이틀정도 약 먹고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런 걸로 누워 있고 집안일 안한다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 입장을 말했더니 대꾸한다고

더 꾸지람만 받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눈시울이 빨개지며..) (중국F씨, 24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9월 7일)

<사례 #19>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시부모님 일어나시기 전에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매일 5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침밥하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국남자는 원래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남편은 생활비를 모두 시어머님께 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돈을 타서 써요. 그런데 잘 안주세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주시고, 저는 옷도 못 사게 해요. 임신했을 때는 잘 해 주셨는데..(한숨..)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법적으로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요.(베트남S씨, 27세, 인터뷰 일시는 2009년 8월 28일)

의사소통은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며,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사람들 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대인수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감정을 이입시키는 행위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²⁹⁾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불일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며, 그 해결에 있어서 난점이 될 수 있고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가정 내의 의사소통이란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봉착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며,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일차적 원인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현수(2000)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만족이 클수록 의사소통의 일치도가 높았고, 이해도도 높았다.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후회정도와 의사소통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의사소통도가 높은 가정이 결혼에 대한 후회 빈도가 낮았

29)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 13~14.

다.³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가족 혹은 일상생활의 불만족의 원인은 32명 중 13명으로 40.6%가 의사소통으로 힘들어하였다. 또한 경제적 곤란이 10명으로 31.3%,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이 9명으로 28.1%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은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음식, 제사, 가부장문화 등이 주요인이었다.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보다 경제적 곤란의 비율이 3.2%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이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입국 이후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으로 시부모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폭력 등을 일삼으며 결국에는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30) 김현수(2000),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생활만족",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 논집」, vol.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pp. 250~252.

IV.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방향

1. 사회생활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지만 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취업 욕구에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을 하기 전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취업과 관련한 기술 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은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과 운영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정책적 협의와 함께 추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개개인의 역량은 매우 다양하나,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인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나,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성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외국어 교육교사 또는 가이드로써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문화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여러 문화가 제주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할 것이다.³¹⁾

본 연구의 조사결과,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53.1%가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모국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광 통역 및 번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1) 경향신문, “다문화 주부, 모국문화 강의 세계가 보여요.”, 2009년 10월 18일.

반해 25.0%가 사무보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상반되는 두 이유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시켜 모국과 한국에 대한 문화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 상담, 서로 간의 대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³²⁾

최근 많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며 시민사회단체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 및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지역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사일, 지역축제, 동네행사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토록 권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웃 주민들과 결혼이민자간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중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8.8%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무수한 세월동안 '단일민족'의 자긍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남을 의식하는 고정관념의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뒤바뀌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31.3%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교육센터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끌어

32) 윤희원(2006),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2~7.

내어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시설 활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족 지원 재단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에 있는 다문화 교육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상담, 이주여성 상담, 의료상담 등 무료 상담활동을 돕고 있으며, 한국 문화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 활동,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등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실 등에서 습득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이 다문화가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외국어도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능력을 갖춘 서비스체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³³⁾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지역 교육청 중심,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일방적 방향의 교육이었다.³⁴⁾ 순환적 방향의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다문화교육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축으로 다문화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퀴모양의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인적·물적·정보공유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생활

제주도내 다문화가족은 결혼과정에서부터 입국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입국 이후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으로 시부모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그 갈등이 심화되어 가정폭력 등을 일삼으며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하여

33) 장미영 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솟대, pp. 61~74.

34) 최재영(2007), "세바퀴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희망 프로젝트", 「교육제주」, 136호, pp. 59~65.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 갈등해소 프로그램이나 부부 대화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적 인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 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꼭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를 학습하고,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 중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의 음식, 문화 등에 대한 문화교육, 컴퓨터 교육 등이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³⁵⁾ 그러므로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관 등에 접근성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활발한 ‘방문서비스’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정책 또한 적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시간을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적응교육의 교재는 학문적 깊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제주어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언어와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한국말을 가르칠 때, 표준말을 제주어와 함께 비교·대조해 가면서 한국어 교육내용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결혼이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

35) 장미영 외(2008), 전개서, pp. 64~66.

발프로그래프와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강좌수를 능력에 맞게 세분화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도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그들이 넓게는 한국 사회와 좁게는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안목에서 중·장기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정과 목표 달성 등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원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곤란,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가정 구성원과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무료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도 필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 전 검사, 임신부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³⁶⁾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결연을 맺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³⁷⁾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어머니의 모국어와 문화 교육을 병행하여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을 확립시키고, 어릴 때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함으로써 향후 동남아시아의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자원으로 육성시킬

36) 윤희원(2006),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3~10.

37)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우들에게 그 문화를 가르치는 등 수업지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제주 고유의 특성에 맞게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자녀교육

다문화주의는 전통이 없고 불결하며,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예단하는 시각,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은 없어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사회와는 다르게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인에 대한 폐쇄적인 경향이 크다.³⁹⁾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한국어 습득에 대한 자녀의 교육문제,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 불어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거리적인 이유로 인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 있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서울, 경기 외 모든 지역에 5개 이상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센터들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38)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pp. 17-26.

39) 제주의 소리, “그 허망한 하여가를 멈추기를 바란다.”, 2006년 11월 05일.

위해서 각 읍, 면, 리에 더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다문화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원 할만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16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2007년보다 2008년 현재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을 하는 지역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06에 비해 2007년에는 예산이 7배나 집행된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각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서울	59,401	59,401	509,206	509,206	510,082	492,994
부산	900	900	24,500	24,500	88,650	88,650
대구	5,000	5,000	16,000	16,000	9,702	2,240
인천	-	-	60,000	60,000	48,160	40,000
광주	-	-	85,292	85,292	5,697	-
대전	934	934	964	964	1,929	1,597
울산	-	-	-	-	-	-
경기	1,059	259	75,376	69,376	34,110	27,929
강원	-	-	-	-	27,050	17,458
충북	21,000	21,000	49,932	49,932	14,747	6,268
충남	-	-	84,090	84,090	97,730	97,730
전북	-	-	293,160	260,705	119,410	40,271
전남	10,720	10,720	25,473	25,473	125,410	91,972
경북	1,000	1,000	41,960	34,765	186,315	101,645
경남	-	-	20,320	20,320	70,000	60,000
제주	-	-	2,000	2,000	68,000	14,000
계	100,014	99,240	1,288,273	1,242,643	1,406,735	1,082,754

* 2007년 집행액은 6.30. 기준

* 재원: 국고, 자체, 외부(출처기재) 등 포함(다만 '07 예산엔 국고지원액 14억원 미포함)

* 시도교육청별 세부내역 참조

자료: 전경숙(2007),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현황」

<표 17> 2007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학생 1인당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학생수*	학생수 대비 예산/ 집행 율	
	예산	집행		예산 율	집행 율
서울	510,082	492,994	1815	281.03	271.62
부산	88,650	88,650	549	161.47	161.48
대구	9,072	2,240	353	25.69	6.35
인천	48,160	40,000	600	80.26	66.67
광주	5,697	0	330	17.26	0
대전	1,929	1,579	2661	7.39	6.12
울산	-	0	205	-	0
경기	34,110	27,929	3182	10.71	8.78
강원	27,050	17,458	843	32.08	20.71
충북	14,747	6,268	759	19.43	8.26
충남	97,730	97,730	1135	86.11	86.10
전북	119,783	40,271	1083	110.60	37.18
전남	125,410	91,972	1480	84.74	62.14
경북	186,315	101,645	738	252.46	137.73
경남	70,000	60,000	1203	58.19	49.87
제주	68,000	14,000	125	544	112
계	1,406,735	1,082,754	14661	95.95	73.85

※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와 외국인노동자가정 학생 수를 합한 전체 초·중등 학생 수임.

* 2007년 집행액은 6.30. 기준

자료: 전경숙(2007),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현황」

또한 <표 17>과 같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예산(2007년)편성 액수를 다문화가족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서울이 1인당 281,000원 정도였으며, 부산은 161,000원, 경북은 252,000원으로 예산 배정되었으며, 대전은 7,000원으로 가장 낮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지역별 특성, 지역 내 다문화가족 수 등 실태 및 요구조사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 사례 지역으로 뽑힌 전라북도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인하여 14개의 센터가 시와 군에 설치되어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법률기관,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⁰⁾

4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2009),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위원 워크숍」.

V. 결론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인천, 부산 등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국가 간·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구현을 지역의 미래상으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단기간동안 있다가 모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도에 정착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제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정책과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과 외국자본 유인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고안한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제주시에 있는 결혼이민자 32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주로 제주이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구체적인 심층면접 내용에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결혼이민자의 가족 불만족 원인, 공공기관 사용이유, 희망취업직종, 결혼이민자의 요구사항,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교육의 어려움에서 보면, 의사소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지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로는 중국(한국계포함),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가족 혹은 일상생활의 불만족 원인에서 보면 의사소통과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경제적 곤란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

공기관 사용이유에서 보면, 상담, 교육, 이용안함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취업직종 면에서 보면 관광 통역 및 번역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보조 그리고 학원 강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요구사항을 보면, 이민자교육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 다음으로 취업과 연관된 정보,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고, 한국문화의 이해 및 생활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들 중 미흡한 의사소통에서 오는 갈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 등은 제주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쓰고,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취업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제주도 내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한림읍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32가정을 면담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전체를 일반화시킨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들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가 중국(한국계를 포함), 베트남, 필리핀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면담을 하였으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들은 영어로만 구술하여 면담하였으므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 및 사회 내 인권침해적인 폭력, 국적 취득의 어려움, 가계 생활의 빈곤함,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 같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른 지역에서의 정책과는 달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역과 국가 더불어 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사

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제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취업과 연계 가능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마련, 다문화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문화가족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인적·물적 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좀 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다문화 주부, 모국문화 강의 세계가 보여요”: 2009년 10월 1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81718245&code=950301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 권오희(2007).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독일보. “미국 이민의 역사”: 2008년 2월 16일.
<http://www.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lif&id=189818>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행정대학원.
- 김대수(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보라(2008). “국제결혼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선미·김영순(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옥(2005).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권 2호.
-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복지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수(2000).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생활만족”,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 논집』,

vol.1,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현미 외(2008). 『생활세계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사끼 우찌다(2007).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
- 문용린 외(2008). 『이주가정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무지개청소년 센터.
- 박민정(2007). “사회과 교실의 다문화교육 수업모형 개발연구(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대한 시민교육적 접근)“, 석사학위 논문, 성신대학교 대학원.
- 박병섭(2008). 『다문화주의 철학』, 실크로드.
- 박영순 외(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박은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규(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전북 지역 사례”,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찬영(2008).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인문교육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 서지명(2008). “경북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조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호.
- 송복희(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익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신경희(2008). “농촌의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심인선(2006).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심인선(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안연식 외(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주시민신문, “다문화, 다인종 공동체를 만들자” : 2008년 1월 2일.
<http://www.yjn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4>
- 염미경(2007).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 염미경(2009). “2009년 다문화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사연수자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성배(2005). 『코시안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은순 외(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 왕한석(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 양상”,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 원희목(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향후대책』, 정책토론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8권 제 2호, 역사문화학회.
- 윤희원(2006).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성순(2008). 『이주여성 이야기(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이야기)』, 형설라이프.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25.
- 임지현(2008). “문학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 개념중심 수업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영 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 교육프로그램 연구)』, 글솜대.
- 장훈성(2008).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기선 외(2007). 『경기도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장단기 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영성(2008). “농촌 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전남 함평군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태 외(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한국언어치료학회.
- 정현영(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 대학원.
- 제갈종기(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제주의 소리, “그 허망한 하여가를 멈추기를 바란다” : 2006년 11월 05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59>
- 조선일보. "코시안, 10년후 10만명 달할 듯", : 2003년 5월 4일.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470202
- 조혜영(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경란(2009).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최재영(2007). "세바퀴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희망 프로젝트", 「교육제주」, 136호.

최충욱 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최협 외(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한건수 외(2006b).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건수(2006a).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한라일보, "제주어 보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08년 12월 8일.

<http://www.hallailbo.co.kr/>

홍달아기 외(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한국생활과학회.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황범주(2008). "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황윤주(2008), "결혼이민자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경험",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Banks, James A. , 모경환 외 공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Glesne Corrine, 안혜준 역(2008). 『제3판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프레스.

Rosado, Caleb (1996).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ph.D. in Soci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Washington Post, "The Myth of the Melting pot. By William Booth", 22 February, 1998.

Welfare News, "엄마, 왜 내가 다문화야?": 2009년 9월 21일.

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20623

ABSTRACT

Actual Condition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y's Adaptation and Directions of Support Policy in Jeju City

Yuh, So-You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Riding on the waves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population migrant across borders is becoming common and universal on the globe, bringing the age of 'borderless migration. Jeju City is no except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Island,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Jeju island was 2,645 as of the end of April 2006, which was a more than triple growth in three years. At the end of 2006, transnational marriage accounted for 7.7% (277 cases) of 3,576 total marriag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sland. With the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marriage immigrant families have been studied continuously.

Based on prior studies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is study attempted to delve into the realities of adaptation among marriage immigrant families living in Jeju City so as to seek the direc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ourse of encountering the cultures of their husbands and in-law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s members of Jeju community are having trouble due to conflicts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In that sense, this study reviewed the lives and realities of adaptation among the famili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based on such cultural conflicts in terms of their social and domestic lives and children's education. Also,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pproach aforesaid, the present study was to suggest a direction of support policies for the famili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 that they could settle in as a true member of the Jeju community in the fu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8 to September 2009 with the multi-cultural famili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Hanlim-eup and Aiwol-eup in Jeju City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Using the snowball sampl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present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regard of difficulties of children's education among marriage immigrants, communication problem was dominant, followed by helping learning and educational expenses. Second, when it comes to dissatisfactory aspects in family and daily lives of marriage immigrants, communication, parents-in-laws and conflicts with husbands were noticeable followed by economic troubles. Third, the primary reason they visit public offices included consultation followed by education, while domestic and geographical problems prevented them from visiting public offices. Fourth, as for employment, study subjects showed more interest in tourism,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an any other types of jobs, followed by office clerks and instructors at private institutions. Fifth, in respect of requirement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mmigrant education was desperately required, followed by employment-related

information and economic support. Finally, concerning education necessary for marriage immigra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found most necessary, followed by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living information.

All in all, it was found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had trouble in daily lives, children's educ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because of language differences and resulting communication problems, and in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due to conflicts with in-laws and Korean culture.

Therefore,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ed focus on developing diverse programs for their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human resource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employment, and economic support as well as education for them to get over cultural and social differences and to adapt to their communities.

